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김상경 안방극장 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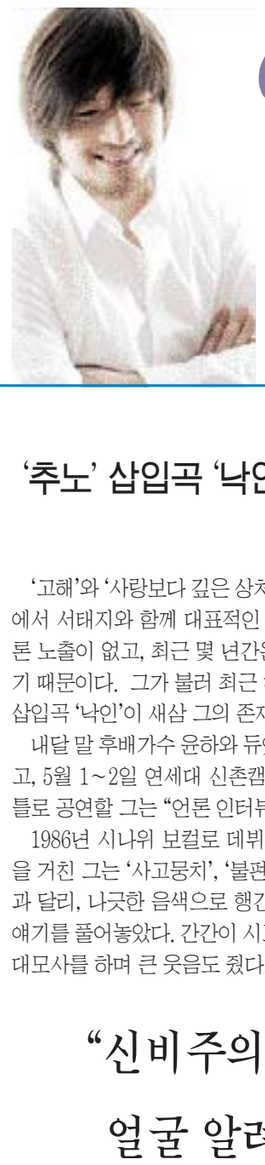
'국가가 부른다' 주연

김상경(38)이 KBS 2TV '국가가 부른다'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김상경의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상경은 '부자의 탄생' 후속으로 내달 말 선보이는 '국가가 부른다'의 주인공 고진혁 역을 맡는다.

'국가가 부른다'는 융통성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정보요원 고진혁과 사고뭉치 여순경 오하나가 사건 해결을 위해 만나 사사건건 부딪치다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김상경이 연기하는 고진혁은 특전사 출신의 정보요원으로, 겉으로 보면 완벽한 엘리트지만 사실은 빈 구석이 많은 '허당남'이다.



"쫓기는 듯한 느낌 많아 내 전생은 노비 였을 것"

'추노' 삽입곡 '낙인' 부른 임재범

'고해'와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부른 가수 임재범(48)은 가요계에서 서태지와 함께 대표적인 신비주의 가수로 꼽힌다. 방송과 언론 노출이 없고, 최근 몇 년간은 공연 무대에서도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불러 최근 히트시킨 KBS 2TV 드라마 '추노'의 삽입곡 '낙인'이 새삼 그의 존재를 각인시켜줄 뿐이다.

내달 말 후배가수 윤하와 듀엣한 싱글 '사랑에 아파한 날들'을 내고, 5월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산책'이라는 타이틀로 공연할 그는 "언론 인터뷰는 6년만"이라며 멋쩍어했다.

1986년 시나위 보컬로 데뷔해 외인부대, 아시아나 등의 록그룹을 거친 그는 '사고뭉치', '불편한 사람'일 것이라는 세상의 선입견과 달리, 나긋한 음색으로 행간에 유머를 섞어가며 요즘 일상부터 얘기를 풀어놓았다. 간간이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이순재 성대모사를 하며 큰 웃음도 줬다.

"신비주의자 라고요? 얼굴 알려지는 게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

"가수의 삶보다 아빠, 남편으로 사는 데 70%를 치중했어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은 육아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이 키우는 방법을 꿰고 있죠. 요즘 사교육 열풍이지만 저는 딸이 땅을 밟고 흙장난도 하고 자연과 벗하며 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겸손하고 소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방과후엔 딸을 학원 대신 공부방에 보냅니다."

가정주부처럼 말하는 그와의 대화는 시작부터 반전이었다. "음악 활동이 뜸했던 것은 신비주의였느냐"고 묻자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눈치다.

그는 "친척 중 내 또래 없이 혼자 자랐다"며 "어린 시절 소꿉장난과 인형놀이를 즐겼는데 초등학교 때 '인형의 나라'라는 글로 상도 받았다. 아버지는 '밥 먹었니, 공부했어'라고 명령투로 말씀하셨고 그런 환경에서 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데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를 소외시켰다"고 말했다.

이때 만난 것이 바로 록음악이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야밤에 듣는 라디오는 그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는 해방구였다. 스콜피온스, 딥 퍼플, 블랙 새버스 등 초기 하드록은 제목도 모르고 들었지만, 이 음악들이 그의 삶에 가수라는 직업을 선물했다. 1991년 발표한 솔로 1집은 판매량이 꽤 됐다. 그러나 방송 한번 출연으로 얼굴이 알려지는 게 감당하기 힘들었고 기자들도 무서웠다고 한다.

그래서 임재범은 1집을 낸 뒤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 칩거했다. 임재범은 다시 음악 활동에 의욕을 갖게 된 건 방황했던 지난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 때문에 풍족하지 못했던 아내와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그는 타고난 재능에 비해 가수 생활은 화려하지 못했다.

그는 "내 방황 탓에 외적인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며 "하지만 인기, 명예를 이제 누리고 싶다는 게 아니다. 동네 아저씨, 형 같은 마음으로 이 분야에 있는 분들과 둥글둥글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 영국 갈 때처럼 '난 록으로 세계를 정복할 거야'라는 마음으로는 이제 살 수 없지 않나"라고 웃었다.

임재범은 "'낙인' 녹음을 하면서 드라마도 노래도 잘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가 무척 컸다"며 "여느 드라마처럼 신데렐라식 권선징악에 기대는 스토리가 아니었다. '사랑이 뭐길래' 이후 처음으로 집중해 본 드라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전생이 있다면 노비였을 것 같다"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어딘가에 정착 못 했던 걸 보면 내 마음속에 노비 의식이 있었나 보다"고 웃었다.

그는 이번 싱글을 낸 후 내달 중순 SBS TV '초콜릿' 등 방송 무대에도 오른다. /연합뉴스

엄마도 예쁘다 김자옥

늘 곱고 예쁜 역만 했지만…

"고쟁이 입은 제모습 상상만 해도 즐거워"

중년의 엄마가 주인공인 일일극이 안방극장을 찾는다.

내달 5일 첫선을 보이는 KBS 2TV 새 아침극 '엄마도 예쁘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엄마의 옛날 남자 때문에 벌어지는 가족 간의 일을 그린다.

주인공 엄마 이순진은 김자옥(59)이 연기한다. 이순진은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4남매를 키워낸 여성이다.

김자옥은 "'억척엄마'를 꼭 하고 싶었다. 그동안 보여준 고운 이미지 말고 털털하고 수더분한 이미지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늘 곱고 예쁜 역만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좀 털털하고, 예쁘게 안 꾸며도 되는 엄마를 하고 싶었어요. 헤어스타일도 그동안은 늘 예쁘게 위로 틀어올렸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고무줄로 질끈 매고 나와요. 그런데도 김자옥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수수하게 옷을 입고 촬영장에 가도 '너무 화려하다'는 지적을 받고는 해요. (웃음) 그래서 일부러 '고쟁이' 바지도 입고 그래요."

김자옥은 무엇보다 경상도 사투리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부모님들이 경상도분들이라 듣고 자란 것은 있어요. 하지만, 전 한 번도 경상도 사투리를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제일 재미있기도 해요. 이순진 역은 사투리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너무 하고 싶었을 정도예요."

'엄마도 예쁘다'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전념해온 엄마도 알고 보니 가슴이 뜨거운 여자라는 것을 그린다.

"엄마지만 엄마도 여자고, 엄마지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사랑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항상 사랑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드라마가 엄마의 사랑을 그려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상대역은 김동현이 맡았다.

김자옥은 "김동현 씨 하고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처럼 지냈다. 와이프(혜은이)와도 친하다"며 "김동현 씨가 원래 멜로 드라마에 잘 어울리는데 근래에는 좀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